

「그것은 모두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핸드폰의 달력은 분명, 1월 14일 일요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랬다. 오늘은 분명 나와 그녀의 기념일이 아니었다.

그녀와 나의 기념일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녀 앞에서 대역죄인이 되어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에 대한 나의 회고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싶을 정도로, 그녀는 내게 과분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원한다면 나는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는 없어서,

우주로부터 유래한 수많은 원소들을 선물해주었다. (무엇인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태양보다도 눈부시고 보름달보다도 눈을 땔 수 없을만큼 아름다운 그녀였기에,

나는 그녀가 내 우주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우리는 필경 전생에서도 인연이 있었으리라 믿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다.

그녀와의 만남도 착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분명 친구와 K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친구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음성 뿐.

대답이 없는 친구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모든 계획이 다 완벽했는데, 그 친구만 나타나면 오늘 하루가 완벽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내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지는걸 깨닫자, 얼굴이 같이 일그러지는게 느껴졌다.

"저기..."

그때 그녀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오늘 만나기로 한 OO씨 아니신가요..?"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잘못 보신듯 합니다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신호등이 바뀌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붉어지는게 보였다.

"아.. 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허둥대는 모습이, 내 눈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인연은 더 이어지지도 않았으리라.

하지만 너무나 당황한 그녀는, 그녀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리는걸 미처 보지 못했었다.

그녀의 커피잔에서 튀겨져 나온 액체는,

완벽한 중력의 영향을 거쳐 내 옷에 갈색의 칙칙한 얼룩을 만들고 말았다.

"앗...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왜였을까.

나는 분명 완벽한 계획이 어그러진 것에서도 화를 내야 했고,

이제는 계획이 어그러진걸 넘어 나라는 사람이 완벽한 무질서요, 카오스계(界)에 접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은 채 어찌할 줄 몰라했다.

하지만 당황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당황한 것은 얼룩져버린 내 옷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에 물들어버린 마음 때문이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나도 예상치 못한 말을 해버렸다.

=====

"사실...제가 OO씨가 맞습니다. 아까는 너무 놀라서 착각을 해서 그랬어요."

마음 속에서 나온 말을 뱉자마자 나는 경악해버렸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하지만 나의 이성엔 이미 감정에 잠식되어버렸다.

그녀에게 물든 나의 마음은, 나의 뇌는 이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향연으로 가득차 버린 것이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옷은 세탁하면 되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다.

옷은 세탁해도 되지만, 마음은 세탁할 수 없다는걸.

한 번 그녀에게 물들어버린 나의 마음은, 더 이상 이전의 색채로 돌아갈 수 없다는걸 말이다.

"혹시 여기에 있는게 불편하시다면,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하는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불편해할거라고 생각해서 배려를 한것만은 아니었다.

사실은 그녀가 정말로 만나야할 사람을 내가 피하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었다.

이 어긋난 인연을, 온전히 나만의 인연으로 만들고 싶어서.

운명의 붉은 실이 정말로 있다면, 그 실을 그녀의 손가락에 내가 걸고 싶어서.

=====

나는 그녀를 근사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려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 법.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근처 감자탕 집이었다.

"더 근사한 곳으로 모시고 싶었는데요..."

"저 감자탕 좋아해요. 소주도 좋아하고요."

그녀는 장난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 답했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어긋나보이는 인연을 딱 맞는 퍼즐조각처럼 알맞게 맞춰가고 있었다.

=====

직쏘퍼즐을 해본 적이 있는가? 퍼즐이 적다면 어떤 조각에서 어긋난 조각이 있었는지를 알기가 쉽다.

하지만 맞춰야할 조각이 많아질수록, 어떤 조각을 잘못 맞췄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특히 그것이, 어떠한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상태의 퍼즐이라면 더더욱.

그녀와 함께하는 나의 기억은, 모두 백지에 뿌려지는 유채색 물감처럼 다채로웠다.
그래서 나는, 어긋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인연에 더더욱 매달렸던게 아니었을까.

운명의 여신이 가위로 우리 사이 실을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다른 실을 가져왔을 것이다.
설령 그 실이 붉은 실이 아니더라도, 피보다 붉은 내 진심으로 붉게 만들면 되니까.

나는 그녀와 함께 감자탕에 소주를 주문하고, 붉은 감자탕을 보며 그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너무 오래 생각을 한 탓이었을까?
그녀가 내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된다는 표정을 하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게 혹시 운명은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에이 농담도..."

그녀는 내심 말도 안되는 생각을 말했다는 사람을 보듯이 이야기했지만,
이내 장난스런 미소를 지어주었다.
그리고 나의 잔에, 그녀의 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말을 이어나갔다.

"이제 이 술잔을 우린 같이 마시는거예요. 취해도 몰라요 헤헤.."

모를 수가 없었다.
잔을 부딪치기 전에 이미 그녀에게 취해있었으니까.

=====

변수가 생겨버렸다. 그녀가 술을 너무 잘 마시는 것이었다.
나는 주량은 두 병. 이미 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왜 이리 멀쩡한 것인가. 나는 술에 취하고 그녀에게 취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이제 그만 마실까요?"

나는 그녀를 걱정하는 척하며 슬쩍 물었다.

"저는 아직 말짱해요! 혹시 취하신 거예요?"

"그럴리가요. 헤헤.."

나는 객기를 부렸다. 부리면 안 되는 객기였다. 멈춰야 했다.
나는 그저 취객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날 밤의 기억이 여기서 끊겼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녀는 어디로 갔는가.

=====

우선은 내 주변을 살펴봤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사라지지 않는지, 다행히 사라진 물건은 없었다.
사라진 물건이 없는 대신, 거울에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 어제 즐거웠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게-요?

마치 장난을 치는 듯한 그 말투. 그녀가 쓴게 분명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이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다.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쓰린 속을 안고 몸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그랬나... 이곳은 감자탕집 근처에 있는 모텔이었다.

그렇다해도 처음 만난 사람을 모텔로 데려올 생각을 하다니.
그녀가 정말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다.
하긴, 그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 나 자신도 대담하다면 대담하지만...

우선 감자탕집에는 그녀가 없었다.
하지만, 어제 감자탕과 소주를 들이키던 남녀를 기억했던 것일까?
감자탕집 사장님은 나를 보고 오라는 손짓을 하더니, 나에게 쪽지를 한 장 더 건네주었다.

- 잘 찾아오셨네요. 그럼 다음은 어디게-요?

감자탕집 이전에 나와 그녀의 연이 닿았던 곳이라면...
한 곳 밖에 없었다. 나는 그 길로 카페로 향했다.

카페로 들어가니, 어제의 그 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혈레벌떡 들어오는 내 모습을 보며 그녀가 생긋 미소를 지었다.

“어서오세요.”

마치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처럼,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나를 맞이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일까.
시계를 보니 핸드폰의 달력은 분명, 1월 14일 일요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랬다. 오늘은 분명 나와 그녀의 기념일이 아니었다.
그녀와 나의 기념일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그녀의 기념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어제의 일에 대한 사죄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 앞에 대역죄인처럼, 석고대죄를 하게 된 것이다.

=====

"그... 그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나는 더듬거리며 할말을 찾았으나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때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훈님."

"어... 어떻게?"

나는 너무 놀랐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제가 어떻게 중훈님 이름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어디서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으나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

머릿속이 새하얗였다.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백의민족이라는건가?
온갖 말도 안되는 생각들만 머릿속에서 휘몰아쳤다.

"사실... 전 OO씨를 만나러 온게 아니었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어제 친구분이 전화를 안 받으셨죠?”

“그.. 그걸 어떻게..?”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그런 말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다. 이건 어제 마신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실... 제가 전화를 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야 약속이 틀어지니까.”

???

?????

??????????????

머릿 속에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만이 떠돌고 있었다.

이런걸 사고언어라고 하는건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녀가 말한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최대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왜 중훈님을 만나러 와야 했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제 그녀는 최대한 토라진 표정으로 말을 잇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조차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게 맞는건가?

도대체 나와 그녀는 어디에서 만남이 있었던 것이지?

=====

그녀는 나를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중훈님, 1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었죠?"

"아니, 그걸 어떻게...?"

"그때 중훈님은 많은 기억을 잃으셨죠. 그 잃어버린 기억 안에 저도 있고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던 사이란 말입니까?"

"네. 너무 빠른 아침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중훈님은 저를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다.

분명 그때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건 맞지만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기억을 회복했다.

가족들도 그렇게 말해줬었다. 모든 걸 다 기억해냈다고. 분명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

이제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눈물이 그렇그렇해진 눈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전 당신의 약혼녀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끝낸 그녀는 이내 폭포와 같은 기세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 기억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은 뒤로,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했다.

그랬다.
그제서야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갈색 커피의 얼룩도, 붉은 감자탕의 색채도, 투명한 유리잔 속 소주도.
분명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기억들이 홍수로 넘치는 빗물처럼 머릿 속을 채워나갔다.
두 손을 잡던 감촉, 서로를 안고 있던 체온, 상대방을 향해 다정하게 하던 언어들.
먼 시점의 기억부터 어제의 기억까지,

”사랑해. 내가 언제나 네 곁을 떠나도 난 네 곁을 이렇게 찾아갈거야.
네 기억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저 내게 다녀왔다고만 이야기해줘.“

그녀는, 아니 너는 내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어긋난 퍼즐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정말로 머릿속 회로가 재배열 되는 느낌이 들었다.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도 상관 없다. 이건 나만의 감각질이니까.

”...다녀왔어.“

그렇게 말하며, 나는 너를 안아주었다.
그래, 난 너와 이미 피보다 붉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였었다.
너라는 사람을 만나고, 내 모든 삶은 백지로 이루어진 퍼즐이 아니었다는걸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너에게 이미 내 반쪽을 줬었기에, 너를 다시 만나도 반했다는걸 다시 깨달았다.

어쩌면 나는 너에게 다시 똑같은 고통을 줄지도 모른다.
내 기억이 다시금 고장난다면, 너에게 똑같은 기쁨을 주고, 똑같은 슬픔을 줄 것이다.
그래도 네가 나를 기다려준다면, 나는 너에게 오늘처럼 다녀왔다고 말해줄 것이다.
언젠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거라 약속하는 사기꾼이 되느니,
네 곁에서 광대처럼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광대가 되어줄 것이다.
그것이 너와 나의 영원회귀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리라.